

“대한민국 명품축제 도약 계기 만들것”

20회 맞는 왕인문화축제 준비 김한남 향토축제추진위원장

문화부 우수축제 선정 기여할 것
외국대사 등 13개국 관계자 초청
국제 지명도 높이기 위해 노력

“올해 축제를 알차게 치러 우수축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김한남(69)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은 “왕인문화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한 등급 끌어올려 행사의 지명도를 높이고 국가지원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하고 있다.

3년 동안 행사를 준비해온 김 위원장은 “지난해 축제 메인 프로그램에 적합한 뮤지컬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축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왕인문화축제 대표행사인 ‘왕인박사 일본가요’ 프

로그램에 추가한 뮤지컬 프로그램에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넣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매년 행사에 일본에서 평균 50, 60명이 행사에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의 가교가 되고 있다”며 “올해 행사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행사에는 아시아, 유럽권 주한 외국대사 등 모두 13개국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초청한 인사들이다. 영암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어와 일본·중국어 등 3개 국어 포스터·리플릿을 제작, 여행사와 외국인언지에 배포했다.

그는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은 군민들의 지지와 폭넓은 참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왕인박사 일본가요’ 프로그램은 영암군 읍면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대규모 가리 퍼레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암군은 1600년 전 일본에 학문을 전한 백제 왕인박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83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왕인박사 일본가요’ 프 /영암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암=전봉천기자 jbh@kwangju.co.kr

‘학위의 제왕’ 70세 이탈리아 남성, 16번째 학위 도전

이번엔 식품과학과 입학 준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15개의 학위를 취득해 세계 최다 학위 소유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탈리아 남성이 16번째 학위에 도전한다.



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섭렵해 이후 7개의 학위를 추가했다.

낮에는 작은 집과 정원에서 소일하지만 언제나 새벽 3시면 일어나 공부를 시작한다는 바이에티 씨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책 덕분에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질 줄 모르는 그의 학구열은 1972년 체육교육으로 학사 학위를 따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사회학, 문학, 법학, 정치과학, 철학, 범죄학, 군사전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다.

그는 “내 몸과 머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한다”며 대학 졸업 후 반세기 가까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을 털어놨다.

그는 학위 과정 대부분을 로마의 명문대 사피엔자 대학에서 마쳤고, 일부 학위는 개방 대학, 원격 학습 등을 통해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그가 교사라는 직업을 은퇴 시까지 유지하고, 이탈리아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모든 공부를 해냈다는 것이다.

새벽 3시면 꼬박꼬박 서재로 향하는 그는 “이 시간엔 뇌가 좀 더 열려 있어 지식을 받아들이기 쉽다”고 웃으며 말했다.

광주 서구 농성2동 보장협이체, 저소득층 장학금



광주시 서구 농성2동 보장협의체(위원장 고운순)는 15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10명에게 희망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농성2동 보장협의체 제공)

인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직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송미령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규제영향평가팀장 우병준 ▲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장 정민국 ▲농업관측본부장 황의식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실장 한석호 ▲농업관측본부 곡물실장 김국진 ▲기획조정실장 박준기 ▲기획조정실 예산경영전략팀장 한천희 ▲경영지원실장 김동원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장 김병철 ▲재무회계팀장 한우석 ▲시설관리팀장 강명환 ▲감사실장 심금섭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최혁·박덕희씨 차남 민석(무등일보 문화특집부 부장)군 강역수·박복실씨 장녀 동화양=18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서구 차평동 마스터스관광호텔 1층 모란홀.

▲김대욱(동신투어 회장)·유정남씨 차남 경태군 김옥석·유미애씨 장녀 지원양=18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1-628-0900.

▲송동현·임미영씨 장남 민승근 진판길·김용례씨 장녀 화연양=25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홀.

중친회

▲파평읍시 광주전남 중친회(회장 윤충상) 정기총회=21일(화) 오전 11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광주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회(회장 이철환) 이

화월례회=21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이화월례회=22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조선대 기계공학과 동문회 제3대 김형근 회장 취임식=16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3층 사파이어홀, 문의 사무총장 양효술 010-9402-6104.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인양 가정=“인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인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광주서구중독관리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서구지역 중독 및 정신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상담 금호복지관 062-383-0205. 상촌복지관 062-373-0207. 상촌시영복지관 062-373-0203.

▲최창렬 전실용음악교수 강좌=색소폰, 기타, 재즈 피아노 등 무료강의(초보환영).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평생교육원, 매

“도움 필요한 위기 청소년 사랑으로 보듬어야”

이광은 메르시라이프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

이광은(사진) ㈜메르시라이프 대표 이사가 15일 광주지역 저소득 위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오치세우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저소득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진로탐색캠프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이광은 대표이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이끌어 장차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독거노인 생계비와



특히, 그는 ㈜아로마라이프 창립 당시 공장자재비 3000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술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고, 때를 놓치면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동장 잔고에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생활비 지원, 쌀과 연탄, 김장김치 나눔, 해밀학교 후원 등 지역사회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

이 대표이사는 “이후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심시일반 성금이 모여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기부한 다음날 공장자재비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광은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 1억원 이상 개인요격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광주 39호 회원으로 가입, 광주 33호 회원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과 광주 4호 부부 아너 회원이 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가장·남편·교사·시인으로서 삶 ... 사랑의 편린 오롯이

정년 앞두고 시집 출간 광주 첨단고 전상훈 교장

“저지 않은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공직생활 38년을 마감하는 정년의 자리에서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광주 첨단고 교장으로 재직중인 전상훈 시인. 1979년 고흥 백양중을 시작으로 38년째 교직생활을 해오고 있는 전 교장은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1996년 첫 시집 ‘사대 무순 말야’를 출간한 지 21년 만에 펴낸 두 번째 시집 ‘아직도 사랑할 게 너무 많아’(책과나무)는 시집 제목처럼 사랑으로 수렴되는



오롯이 배어 있다.

그는 “뛰어나게 훌륭한 교사는 아니더라도 제자들 앞에 최선을 부끄러운 스승이 되지는 말자고 스스로 내리치던 시간

작품들이 다수 담겨 있다. 이 ‘사랑’에는 가장과 남편으로서 갖는 애뜻한 마음, 교사와 시인으로서 지니는 공적인 책무 등 다양한 생 각의 편린들이

이었다”며 “복잡하다하면서도 오색찬란한 상념과 번뇌의 소용돌이가 없었더라면 이 시집의 작품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에 후회가 없었는가 마는 크고 작은 사랑과 미움으로 얽혀진 소중한 인연들이 남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감과 보람의 탐으로 우뚝 섰는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는 분명 ‘남는 장사’ 아니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시인은 합평 출신으로 조선대 국어교육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1년 ‘문학공간’ 신인상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2003년 정부 모범공무원상(국무총리)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장학금 수여식’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5일 광주·전남지역 별정우체국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별정우체국 장학금 수여 및 사랑의 성금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남도회(도회장 윤철성)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20여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와 ‘꿈꾸는사람들 장애인공부방’에도 각각 3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했다.

‘장학금 및 사랑의 성금 전달식’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광주·전남지역 121개 별정우체국 600여 직원들이 매년 꾸준히 모금한 성금으로 이뤄졌다. 12년간 총 2억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교우회는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에 장흥 출신 이귀남(사진)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영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석우 점재정선미술관장 별세

미술평론가 겸 미술사가인 이석우 겸 재정선미술관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해남 출신인 이 관장은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등에서 서양사를 공부했다. 2006년까지 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경희대 중앙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동문 남(남/88세) 子/子婦: 김용익/최성숙 女/婿: 김의정/박민 未亡人: 전정희 ●발인: 2월 16일 ●장지: 대전현충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오운금 남(여/86세) 子/子婦: 정희순/박노숙, 석주/이명희, 희근 女/婿: 정순자/강일환, 문자/이재인 ●발인: 2월 16일 ●장지: 보성노동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이정경 남(여/87세) 子/子婦: 무동욱/신영숙, 동철/안은진, 동하/강복희 女/婿: 류정업/서임주 孫: 류진우, 원희, 결 ●발인: 2월 1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2호 故임춘희 남(여/87세) 子/子婦: 우영석/정경미, 현민/박정화 夫婿: 우동환 ●발인: 2월 17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생명생명보험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